

# 마귀의 약 → 마약

## 변화된 이사야

강기안 | 아르헨티나 선교사



찬양대원으로 교회에서 뜨거운 영적 분위기를 이끄는 이사야(왼쪽에서 첫 번째)

몇 년 전 아르헨티나 제1 현지인 교회인 밀알교회에서 “예수”라는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교회가 대로변에 있어 지나가는 이웃들도 초청하기 위해서 예배당 문을 열어놓고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저는 예배당 제일 뒤 쪽 영사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화가 한창 상영되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교회에 들어와서 쓰러졌습니다.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 청년을 급히 사무실로 인도하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잠시 후 의식을 차린 이 청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이 청년이 주일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주일예배 시 성도들에게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주일도 성도들에게 감사와 간증을 나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 이사야(Isaias Gauna)가 자신이 간증을 하고 싶은데 기회를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오케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가까운(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신도로 있다가 불과 몇 년 전에 목사가 되었는데 아버지의 위선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싫어서 나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황을 하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약을 시작한 지 2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주 금요일 이곳에서 영화가 상영되는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철로변에서 주사기로 마약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 가는데 이 교회 앞을 지날 즈음 심장이 멎는 것 같고 손발이 차가워져 죽음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 동안 제 친구들 중에 마약을 하다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 죽는 것을 보았기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보건소에 들어가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마약중독자라고 함부로 다루기에 몰래 보건소를 빠져 나왔습니다. 보건소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데 다시 심장이 멎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젠 다시 보건소로 갈 기운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문이 열려 있어서 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 중에 몸이 뜨거워지며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마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 청년은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게 되고 놀라운 찬양의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약에 빠져 방황하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간증을 하며 저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마약을 복용하는 많은 사람들과 씨름을 하면서 마약은 '마귀의 약'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손을 대면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 나올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청년들이 마약에서 놓임 받는 모습을 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달이 지난 어느 주일 이사야의 얼굴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사야가 다시 마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나?' 하는 생각과 함께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이사야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밝은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피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종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에이즈에 걸린 친구들과 마약 투여를 위해 주사기를 공유했기 때문에 혹시 에이즈에 걸렸을까봐 피검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검사를 해놓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두려워서 몇 주 동안 그렇게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피는 어린아이의 피처럼 깨끗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마약을 2년 반 넘도록 복용한 피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피까지도 맑게 고치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인도되는 것을 보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간증을 통해서 큰 도전을 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던 일에 대해 새삼스럽게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역사를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삼**